

공직·교수 잇단 명퇴...출판기념회 1년 남은 지방선거 '후끈'

광주·전남 입지자 분주

내년 지방선거(6월2일)가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분주하다. 이들은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명예퇴직해 일찌감치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올해 상반기 공직자 명예퇴직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장 출마설이 나오는 공직자들의 명퇴 신청자만도 4~5명에 달한다.

이들 입지자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떠나 적자생존을 요구하는 정치판에 적응하고,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여유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창중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비롯해 김환규 광주 북구 부구청장, 정해균 여수 부시장, 허남석 곡성경찰서장 등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거나 조기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4~5명의 고위 공

직자들도 조만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담양군수에 뜻을 둔 유창중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지난달 자신의 30년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회고록 '대나무처럼 살고 싶었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얼굴을 알린데 이어 30일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유 센터장은 다음달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환규 북구 부구청장은 지난 25일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명퇴 신청을 했다. 김 부구청장은 "퇴임후 지역사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우회적으로 광산구청장 출마 입장을 밝혔다.

또 정해균 여수 부시장은 7월 중 조기 퇴직해 고향인 무안으로 활동공간을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은 내년에 무안군수에 도전할 계획이다.

허남석 곡성경찰서장도 최근 명예퇴직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 내달 10일 퇴임할 예정이다. 허 서장은 퇴임 후 고향인 곡성에 머물면서 곡성군수를 목표로 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고위 공직자 4~5명도 조만간 명퇴나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최근 교수직을 사퇴하고 배수진을 쳐 관심이다.

양 전 총장은 지난 17일 대학본부에 명예퇴직을 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에서, 특히 대부분의 교수들이 잠시 휴직계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것과는 달리 사직계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온 양 전 총장의 이번 명퇴 신청은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잇따르고, 입지자들의 '벼랑 끝 승부사'까지 등장하면서 선거가 조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엔 상하이...2012년엔 여수엑스포 오세요

한·중 엑스포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2012 여수 엑스포 조직위 학생홍보단이 28일 푸둥 화목문화센터에서 열린 여수-상하이 엑스포 상호홍보 협약식에서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쌀 10만~15만t 매입 검토

수급 불안 해소키로

쌀 재고량이 늘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쌀 매입에 나선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중인 2008년산 쌀 10만~15만가량을 사들여 시장과 격리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고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되는 재고량 가운데 일부를 사들인 뒤 시장에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 재고량이 60만~70만t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만~15만t을 올해 쌀 수확기 이전 소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쌀을 사들일 경우 정부가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사들인 뒤 매입과 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조합장들이 농식품부에 쌀의 매입을 건의한 바 있고,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쌀의 시장 격리를 요청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정량의 쌀 재고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농협 RPC의 쌀 재고량은 55만4천t으로 작년 같은 시기(39만3천t)에 비해 41%나 많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휴대 패키지
여름휴대 패키지
취패/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0)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지방신문협회'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권위 인사들로 새롭게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윤방부 부총장 전상국 총장 한정호 교수 전용배 교수

◇윤방부 기천의과학대학교 부총장
▲미국 미네소타대학 가정의학전문의 ▲기천의과학대학 부총장 ▲대한가정의학회 초대이사장 역임 ▲저서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 등

◇전상국 소설가·김유정문학촌 총장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 ▲한국문인협회 이사 ▲현대문학상·한국문학작가상·이상문학상 특별상 등 ▲저서 '동행' '바람난 마을' 등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KDI 연구위원 및 홍보연구실장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한국홍보학회 회장 ▲저서 '광고와 홍보의 질적 방법론 연구' 등

◇전용배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스포츠경영학 박사 ▲동명대학 체육학과 교수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 이사 ▲저서 '스포츠시설경영론' 등

光州日報社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되판다

재계 순위 10위권 밖으로 다시 밀려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뾰족음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대상에 금호아시아나 등 광주·전남 중견 기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금호아시아나가 재계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등 지역 경제의 위상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는 28일 "대우건설에 제3의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그룹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커 대

우건설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6년 6월 대우건설 주식 72%를 주당 2만6천262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올해 말까지 주가가 3만1천500원을 밑돌면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사기로 하는 '뾰족음선'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선 금호아시아나는 4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금호아시아나는 "제3의 투자자

와 사모펀드 설립을 추진했지만 회계 처리상의 문제점이 대두했고 대안으로 교환사채(EB) 투자 등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그룹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제매각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대우건설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그룹 지분은 유지한 채 투자자 보유지분 39%와 경영권을 매각 ▲투자자 지분과 그룹 지분을 합해 50%+1주를 매각 ▲투자자 지분과 그룹 지분을 합해 72%를 전량 매각 등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검토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Neoce advertisement for a school or training center.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lassroom with a whiteboard and several desks. Text in Korean promotes '지혜로운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 (Wise teacher's wise choice!) and list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Neoce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left.